

## 본질 Ⅲ. 제자는 교회안이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

### 1. 제자들을 가르치심

[마태복음 10: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다.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하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후에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말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처럼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영적원리들을 가르치셨다. 이 원리들은 추상적인 하늘의 능력이 아니다. 사역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였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팔복 등), 속사람의 성품과 그로인한 삶의 성숙한 열매를 맺는 법 등 구체적으로 가르치셨다. 오늘 본문처럼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허약함을 고치도록 하셨다. 그리고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현장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다. 마태복음 17장의 본문은,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을 둔 부모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이 부모는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 달라고 부탁했다.

[마태복음 17:16]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셨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셔서 아이를 고치셨다. 이런 상황을 본 제자들을 예수님께 질문한다.

[마태복음 17:19]

그 때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 2. 현장이 중시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

여기 제자들의 질문에 놀라운 영적원리가 있다. 마태복음 10:1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과 치유의 능력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권한을 주셔서 강하게하신 것이다(empowering). 그리고 제자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갔다. 마태복음 10장에, 현장에 나가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이 나온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성에 들어가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영접하지 아니하는 집에 가면 성에서 나가라. 그리고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너무나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있을 일들을 가르치신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은 하늘에서 부여된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힘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최선을 다하셨다. 본질의 메시지이다. 그런데 그에 버금가도록, 하늘의 진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장에 대해서도 강조하시는 모습을 본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라. 제자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맞이할 상황들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지 주목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언제나 교회(회당)안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운 영적인 능력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증받도록 하셨다.

이런 배경속에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현장에서 귀신들린 아이를 고쳤지만 실패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실패에 집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패 속에서 좌절하지도 않는다.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지만 주눅든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속 없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라고 질문한다.

본질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이 생명력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그래야 본질의 가치가 인정되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원리가 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배운 진리가 내 것으로 체질화 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좋은 배움이란 무엇인가? 내가 배운 것이 내 것으로 체질화 되는 것이다. 녹아든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내가 사는 현장에 적용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 3. 질문할 수 없는 수동적 교육

교육의 핵심은 무엇인가? '능동성'과 '수동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의 목표는 의존적, 수동적인 사람을 가르쳐서 주체적,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시켜서 의미없이 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자원하여 스스로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진리'에 대한 자세와 태도의 문제이다. 그저 아무생각없이 주입식으로 영적원리를 알 수 없다. 남이 발견한 진리, 방법들을 들으려고 세미나를 참석해도 소용없다. 배우는 단계가 있었다면, 그것이 내 것으로 체질화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에서 검증해 보아야 한다.

### 4. 현장의 실패에 머물지 말라. 실패를 재료로 질문을 만들라.

본문의 제자들처럼, 현장에서 '아는 것'과 '현실'의 차이의 간극 경험한다. 그리고 실패도 경험한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제자들은 '질문'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질문했다.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예수님과 다니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적원리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능력은 없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진리가 자기 것으로 체질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양은 예수님이랑 비슷한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죽은 지식이 된 것이다.

### 5. 질문하는 사람이 다른이유

#### (1) 자기점검을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실패는 자기점검의 좋은 기회가 된다. 그리고 다시 잘못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실패를 보는 눈이 다르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바로 '실패'에 대한 태도이다.

세상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잘못을 용납하지 않는다. 실패하면 낙오자이고 잘못하면 일어날 수 없는 구조가 세상이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다. 자기를 흑사시키고, 학대시키고, 세상이 원하는 모든 기준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주체성'이 없다. 만족이 없다. 남이 하니까, 또 남이 성공했으니까 나도 하는 것이다. 동기부여가 없는 사람들이다. 자기안에 진리가 없으니 확신도 없고 철학도 없다. 그리고 끝까지 가지 못한다. 의지력, 결단력이 없다. 의지력과 결단력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다. '진리'의 문제이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실패를 하면 자기점검을 하지 못한다. 주저앉아 버린다. 그리고 자신을 책망한다. 고통속에서 괴로워한다. 실패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면의 자기 정체성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유행을 따라 사는 삶,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삶, 언제나 쫓아가기 바쁜 인생이다.

실패는 실제적으로 '고통'의 문제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라. 요셉을 보라. 다윗을 보라.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을 보라. 이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고통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신뢰이다. 실제적으로 실패와 고통의 현장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신뢰가 그들안에 '영적인 안정된 공간'을 창조한 것이다. 그들이 육신은 고통중에 있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창조된 영적인 공간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찬양은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한다.

## (2) 새롭게 만들어진 승리의 기반 (플랫폼의 생성)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졌다. 실용 가능한 플랫폼은 삼질을 통해서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본질이 중요하다. 복음이 본질이다. 문제는 복음이 교회안에만 있다. 복음을 들고 현장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다. 이런 문화가 종교인들을 양상해 낸다. 교회가 본질에서 멀어져 있기에 복음이 세상속에서 생명력을 잃는다. 지식화 되고 사변화된다.

복음은 사랑인데 내 옆에 있는 이웃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왜 이런일이 일어났는가? 현장에서 복음의 삼을 들고 땅을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적용해 보고, 실패하고, 점검하고, 또 적용해 보고, 실패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스피릿'이 형성이 된다. 신앙의 철학이 만들어진다. 확신의 기둥이 생겨난다.

다윗의 인생을 보라. 제자들의 인생을 보라. 복음을 들고 이들이 나아갔던 광야와 현장을 생각해 보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본질)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낸 삶의 여정들을 보라. 결국 다윗의 영성, 요셉의 영성, 제자들의 영성이 형성 되었으며 이들의 영성은 오늘날도 살아있다.

## (3) 현장이 주는 복음의 실재성

왜 현장이 중요한가? 현장에 가야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의 냄새, 공기, 느낌, 상황이 구체적으로 내 몸에 체화된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지만 왜 선교사님을 통한 현장의 소리를 듣는가? 좀 더 생생하기 때문이다. 기도의 향방을 잡을 수 있으며, 무엇을 구체적으로 도와야 하는지 정리되기 때문이다 (자원낭비가 없다). 그런데 이보다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현장을 내가 직접보고 경험했을 때의 실재는 간접적으로 듣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현장은 마음을 움직인다. 고통은 실제이다. 선교는 고통의 실재가 있는 현장안으로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다. 현장을 다녀온 사람의 마음안에 있는 선교는 추상적이지 않다. 실제적이다. 선교지를 다녀오면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한다. 선교를 몰랐던 사람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생각이 변한다. 왜 그런가? 현장을 자신이 직접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이다. 왜 복음이 그들에게 '실제'적 필요가 되는지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알게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복음이 빵이된다. 복음이 교육이 된다. 복음이 병원이 된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인과 다르게 현장으로 나가셨다. 예수님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인들처럼 죽은 말씀이 되지 않았다. 자기연민에 빠진 나약한 복음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장으로 가야한다.

## (4) 향유옥합의 깨어짐

영적원리는 깨어짐에 비례한다. 향유옥합을 깨는 일이다. 향유옥합은 자기 자아이다. 한 번 깨어진 향유옥합에 예수님의 은총이 임했다. 이것이 깨어짐의 비밀이다. 많이 깨어질수록 주님의 은총은 증가한다. 그러므로 부서져야 한다. 깨어져야 한다. 내 안에 깰 향유옥합이 많아야 한다. 깨어짐은 축복이다. 깨어짐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 (5) 실패를 두려워 하지 말고, 현장에서 본질을 실제화 하라.

“진리는 실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음을 가르친다”

이것이 복음이며 우리가 세상의 현장안으로 두려움없이 나아갈 수 있는 실제화 된 진리이다.